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2월 9일 (제129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꽃씨를 뿌려라

시골의 어느 집배원이 늘 자전거를 타고 먼지만 날리는 흙길을 지나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지루해서 어머니에게 이를 하소연했다.

다음날 출근하려고 정복을 착용하니 주머니 속에 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꺼내 보니 씨앗이었다. 어머니가 이를 보고는 말한다. “내가 꽃씨를 넣어두었다. 이걸 가면서 길에 뿌려라. 그러면 언젠가 그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될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 말대로 자전거를 한 손으로 운전하며 계속 씨를 뿌렸다. 매일 다니는 길인지라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가을이 되니 온 천지에 코스모스가 핀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코스모스 꽃길이 만들어졌다. 그는 집에 와서 소리쳤다. “어머니, 코스모스 꽃길이 만들어졌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다음에는 봄에 피는 개나리 씨앗을 뿌려 보거라. 그렇게 계속 꽃씨를 뿌리면 사계절 꽃길을 달릴 수 있단다.”

평생 꽃길을 걷고 싶은가? 그렇다면 꽃씨를 계속 뿌려라.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니 코스모스 꽃길이 만들어지고, 개나리 꽃씨를 뿌리니 봄에 개나리 꽃길이 되듯, ‘살겠다’는 씨앗을 뿌리면 ‘살겠다’는 꽃길이 형성되고, ‘잘 된다’는 씨앗을 뿌리면 잘 되는 꽃길이 만들어진다. ‘건강하다’는 씨앗도 시간이 되면 꽃을 피우고, ‘부흥한다’는 씨앗도 뿌리면 그 꽃을 피워 평생 꽃길을 걸게 된다. 그러나 ‘죽겠다’는 씨앗을 뿌리면 그것도 만발하여 힘든 길을 만들고, ‘안 된다’는 씨앗도 좌절의 길을 만들고, ‘아파 죽겠어’라는 씨앗도 시간이 지나면 병원만 들락거리는 길을 만든다. 그래서 꼭 좋고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한다.

인생사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 가시땀불이 사방에 퍼진 것은 언젠가 네가 그것을 뿌렸기 때문이니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다시 좋은 것으로 뿌려야 한다.

나는 내 인생길에 나쁜 것을 뿌리지 않는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40대 기력이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더니 정말 내 인생은 온통 꽃밭이고, 꽃길이다. 꽃길을 걸으려면 꽃씨를 뿌려라.

우리 삶에 문제의 원인은 귀신이다, 추방하자!

우리 교단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초석으로 하여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 있는 교회다. 목사님부터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이 미련하다,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몸부림치는 교회다.

지난 2월 1일, 총회장 목사님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토요일예배를 인도하시며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셨

를 맡히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이날의 주제처럼,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내 삶의 문제, 두려움과 병, 가난은 귀신 때문이다. 추방하면 된다’고 강조하셨다.

“요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독감이다 뭐다 콜록콜록 하며 저에게 찾아옵니다. 하루종일 연신 그 귀신들을 쫓느라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귀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일으킨 베드로의 장모(마8:14)를 비롯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우

바로 ‘귀신아 가라!’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먼지를 털듯이 귀신을 쫓아야 성령의 옷을 입고 천국 생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성역 40주년 영상을 준비하셔서 당신의 목회 40년의 발자취를 보여주셨다. 그곳에서도 목사님은 과거 잠실학생체육관 집회 당시 “우리의 주적은 귀신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도적이야!’ 소리쳐야 나가듯이, 우리는 ‘귀신아, 나가!’라고 외쳐야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 도적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맞다! 지난 40년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컬러는 하나였다. 그것



서울 대학청년부 토요일예배(2025년 2월 1일 노량진교육관)

다. 이는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요 기둥인 우리 젊은이들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히 알기 원하시는 마음이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보통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숙제를 내니 이번에는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귀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한번 일일이 동그라미로 체크해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귀신을 쫓으셨고(마4), 공생애 3분의 2를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데 전적으로 할애하셨습니다(마12:28).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적, 원수 마귀

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다른 곳에서는 뜨거워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등바등 우리 몸에 집을 짓고 유숙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병 들린 자들을 향해 ‘떠나라!’, ‘쫓으라!’ 했을까요? 이는 병의 원인이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무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온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 창문을 활짝 열고 먼지가 나가도록 총채질을 합니다.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날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 예배 때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빨간 벨벳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 목사님께 너무 잘 어울렸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확실한 컬러는 귀신을 쫓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라, 가라’하며 귀신을 쫓았다. 이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고 적이 없는 평화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중심교단의 확실한 색깔이다. 우리 모두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송헌혜 생도

이초석 목사 코스타리카 집회

2025년 2월 18일(화)~27일(목)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6~8)



만물이 주인을 찾고 있다, 찾아라

제가 목회 전부터 골프를 했으니 골프 경력이 족히 4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 제가 꼭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퍼터였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여기저기 찾아 다녀보고, 광고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 애틀랜타에서 찾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땅끝예수전도단 회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찾고자 하니 결국 찾아가야 합니다.

요즘 서울성전 부지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재도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그 일을 맡은 자에게 말합니다.

“서울에서만 찾지 말고, 지방도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도 알아봐라. 더 좋고, 저렴한 것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요, 만물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 중에는 참치를 잡으러 원양어선을 타고 칠레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영혼을 찾으러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한 자는 아성 잃은 호랑이와 같다

제가 요즘 2030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아라. 내 직업, 내 배필, 내 적성, 내 집...’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놓으셨고(창1), 다 예비해놓으셨습니다(고전3:21).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마7:7)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 구비, 조성해놓았으니 찾아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구절을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8). 이 말씀은 다 구비되어 있지만,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움직여야, 행동해야 얻는다는 뜻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고, 찾기 위해서는 찾아야 하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의 문을 매일 두드린 과부처럼,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에게 강청하여 떡을 구한 자처럼.

그런데 하다가 맵니다. 귀찮아서 안 구하고, 게을러서 안 찾고,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눅15:8).

이 여자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자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까짓 한 드라크마’,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히 찾았더니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어디 한 드라크마만 찾았겠습니까? 우리가 장롱 밑을 살펴보면 동전도 나오고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들도 찾지 않습니까? 그 여자도 온 집을 쓸었으니 잃어 버린 다 른 것도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청년대학부 예배 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살 집을 얻어야 하는데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며 부지런히 찾아다녀라. 무작정 나가지 말고, 정보를 얻고 나가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꼭 맞는 집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갖기 원합니까? 배필을 찾기 원합니까?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찾으시면 반드시 찾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요1:12). 그런데 그 귀한 권세를 잃어버려서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고, 건강을 빼앗겨서 아프고, 물질을 빼앗겨서 가난하고, 행복을 빼앗겨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누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누탈하리라”(마12:29). 뿔가를 빼앗으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지요? 마귀는 곧 사단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며(엡2:2), 어두움의 주관자(엡6:12)로 그의 졸개인 불신자의 사후의 영, 귀신을 투입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건강, 재물, 행복, 사랑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들을 진멸하고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고로 강한 자에게 빼앗겼다고 해도 더 강한 자가 오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법이 아닙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의 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눅11:21~22).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병어리 된 자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마12:24)고 했습니다. 귀신보다 강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편끼리 싸워서 어찌 그나라가 서겠느냐? 나는 그보다 강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마12:2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무릎을 꿇으니 그보다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빌2:9~10).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권능을 우리도 얻게 됩니다(행1:8). 즉 성령을 받으면 그에 따르는 능력을 얻게 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독감으로 콧물콧물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르치고는, “집에 가서 콧물콧물하는 엄마, 아빠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줘라.” 했습니다. 쫓으면 나가냐고요? 당연히 나가지요. 더 강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줄행랑을 치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막1). 그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막1:27).

성령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얻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귀신 나부랭이가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빼앗은 것들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들에게 ‘망한 것을 찾아라, 꼬부라진 것을 찾아라’고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 꼬부라지게 한 것들을 더 강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원상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마12:44)하고 뱅글 들어와서는 내 것을 다시 자기 것처럼 차지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살전5:17~19).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힘도 세야 하고, 무기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건강, 재물, 행복, 직업,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찾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아 누리고 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투자 노트: 현명한 투자자의 필수품

효과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잊고 싶은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경험과 그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혼동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투자 결과에서 교훈을 얻는 것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정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결정은 거의 항상 실패로 이어집니다. 결정의 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겸손과 지적인 정직함이 필요하지요.

노트 한 권을 가져와 그간 자신이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을 모두 적어봅시다. 투자 노트는 자신이 결정을 내릴 당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 노트에는 어떤 주식을 매수할 당시 최초의 투자 근거는 물론 매도할 때의 매도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자 노트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유지하고 사후확증편향(과거의 사건을 실제보다 더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여기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노트가 자신의 실수들에서 꾸준히 교훈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실

수들로부터 배우는 것, 그리고 훨씬 중요하게는 타인의 실수들에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겸손하고 지적으로 솔직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되지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보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에 대해 항상 생각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투자란 철저한 분석으로 원금의 안전, 그리고 적절한 수익을 약속받는 일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정의하면서 자본의 회수를 강조하고 이를 자본수익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할 때는 잠재적인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확률뿐 아니라, 그 시나리오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고려해야 하지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짓을 하는 것이다.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그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눅14:28).

목사님께서 매일 일기를 쓰면 절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자할 때에도 투자 노트를 씀으로써 사전, 사후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권사**

:: 빛과 소금 ::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으려면

올해 우리 교단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큰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 1월 한 달이 지나간 시점에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으면 좋겠다. 전대미문의 축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렌다.

나도 몇 가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운동이다. 원래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면 저녁때쯤 체력이 바닥이 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민하다가 집 앞 놀이터에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을 달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40분을 누워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30분 정도 천천히 뛰고, 16층인 우리 아파트까지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도 할만하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보면서 뛰다 보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사람의 몸은 참 적응 속도가 빠르다.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나가겠지만 이렇게 하기까지도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첫째,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였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뛰어보니 처음엔 춥지만 5분만 뛰어도 몸에 열이 나기 시

작하고 점점 땀이 흘렀다. 둘째, 아이들의 겨울방학이었다. 운동할 시간은 오전 밖에 없는데 초등학교가 방학이니 첫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아직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무서워서 하루는 같이 나갔는데 걷는 것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한다. 오전 운동은 당분간 못하는 것인고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학교 도서관이 떠올랐다. 방학 동안 학교 도서관이 아침 9시부터 문을 연다는 공고를 봤다. 아이가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낯설어했으나 사서 선생님이 계시니 편찮을 거라고 다독이며 보내고 난 안심하고 운동을 했다. 처음에는 너무 일러 도서관에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하루 이를 가더니 사서 선생님과 얘기도 하고 재밌는 책도 읽었다며 자랑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핑계 대신 방법을 찾는 자에게 말이다.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행동으로 옮기고, 난관을 만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송지혜 집사

:: 빛과 소금 ::

:: 찬양과 경배 ::

가는 길, 모양은 다르더라도

얼마 전, 중고등부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스키장에 갈 기회가 있었고, 저는 스노보드를 타는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게 됐습니다.

보드는 보통 일어나는 법, 서서 자세 유지하는 법, 앞으로 내려가는 법, 뒤로 내려가는 법의 순서로 배웁니다. 함께 간 학생들에게도 일어나는 법, 일어나서 자세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유독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보다가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하여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뒤로 일어나서 뒤로 내려가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앞으로 일어나서 내려오는 법을 먼저 익히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슬로프를 다 내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보드가 너무 어려운데 스

키로 바꾸면 안 될까요? 다른 애들은 잘 타는데, 저만 너무 못 타는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인데 어떻게 쉽겠냐?'며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고 했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 다른 아이들도 뒤로 내려오는 것을 배워야 하니 결국 같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은 뒤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앞으로 내려오는 법까지 익히고 그날 하루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게 없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겠다(딤후2:20~21).'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자며 혼자 다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예녹 생도**

:: 찬양과 경배 ::



:: 생명의 말씀 ::

기도와 노력

평생 동반해야 할 두 친구 중,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라면, 노력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눈물과 땀이라는 액체로써 최선을 올려 드리는 행위이다. 앉아서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노력해야 하고, 그 반대로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면 앉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한 쪽 극단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비행기가 양쪽 날개가 있어야 몸체라는 그 힘이 상승하는 것이다. 한쪽은 좋은 일이고, 다른 한쪽은 부질없다고 나누어 경시하는 것을 성경은 부정한다. 왜냐면 태초부터 영계와 물질계를 선하게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 둘을 나누어 한쪽을 경시하는 사고가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으니 선하지만, 속된 육체를 입을 수 없다 하여 성육신을 부정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영혼이 구원을 얻으니, 더러운 육체는 벗어버리면 그만이라며 무관심하던지 육체의 죄악을 방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정신은 '전체적(전인) 구원'이기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즐거이차게 이러한 영지주의 이원론 이단을 경계했다.

왕의 나라에 그 통치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어느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복음으로 확장하라는 '문화명령'(창 1:28)을 주셨다. 영적 영역뿐 아니라, 타락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직장, 노동계, 교육계 등 해당 안 되는 영역이 없다. 모든 영역이 예수 이름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유한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려 노력하신다. 그런데 모든 타락해가는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믿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겠는가? 이 사회가 성경의 절대기준을 이탈할 때, 교회와 성도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일침을 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이란 공중에 둥둥 떠다니듯, 교회 안에서만 나 홀로 유유히 영적인 신선놀음만 하는 게 아니다. 기도했으면 치열한 현실 삶의 전장터에서도 타락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 운명도, 성경적 절대기준으로 무장한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노력해야 할 사명이다. **송직화 목사**

:: 생명의 말씀 ::

:: 성도간증 ::

:: 빛이 되리라 ::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작년 하반기부터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갑자기 코피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처치가 곤란해서 내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 시험을 보러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코피가 나는 바람에 시험장에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시험이 끝나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점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함으로 마음을 졸이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과제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평범하던 제 삶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무서로 코피가 나는데 지혈조차 잘 안되고 몸에 알 수 없는 멍 자국까지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위하여 여러 질병의 가능성을 말하더군요. 순간 두려워졌고, 그날 저녁 기도회에 가지마자 두려

움과 억울한 마음이 들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남들은 40일 작정기도 기간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는데요. 저는 남들과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라며 통곡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올해 목회자 세미나, 기도원 집회, 신학교 예배에 가서 반주로 봉사하고, 코피를 쏟아내는 지금 시간에도 새벽 예배에 나가서 봉사하고, 시청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남이 모르게 필요한 곳곳에 물질을 심은 일 등,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라는 절실한 외침의 기도가 나왔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말씀(빌2:9~10)을 믿고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암은 아니지만, 혈액과 관련한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진료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을 고친 것처럼(막5:25~29), 간절한 마음으로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받으러 갔고, 목사님께

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시고,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고, 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새해, 목사님께서 올 한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회를 하시며 우리를 노랑진 교육관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곳에서 ‘올해 제가 하나님께 가장 처음 받는 복이 건강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다가온 정기 진료에서 저는 저에게 겁을 줬던 그 의사의 입에서 완치 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아 간증하길 원했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 글을 통해 응답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중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의 제목을 모두 응답 받고,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막5:25~29).

정주선

전대미문의 복을 받기 위해

올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는 축복의 메시지였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전대미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모두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만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노랑진 교육관을 기도의 처소로 바꾸면서 기도의 양을 늘리라고 하였고,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였고,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역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또 기도한 건 이뤄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방언과 통역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누리며, 내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내 삶에 적용해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각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였다. 성전 건축을 위해 건축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며,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이 큰 축복을 받는 걸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다. 올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때마침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마련되었다. 이를 전대미문의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기회로 삼자.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자. 행동하고 동참하는 자에게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장명훈 집사

공의(公義)

나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미움과 싫어함이 있다면 어찌 목사리오	내가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일 뿐, 이것이 나의 본별이랴오 이것이 공의(公義)라오 - 朋友
---	--

:: 동행하는 삶 ::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첫째 아이의 겨울 방학식 하루 전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가 다쳤으니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부랴부랴 학교에 도착하니 아이가 체육 시간에 다친 아이 머리와 부딪혀 눈두덩이가 안경에 찍혀 다친 것이었다. 급하게 근처 병원에 데려가니 상처 부위가 크진 않지만 깊이 패어서 상한 피부조직을 잘라내고 네 바늘 정도 꿰매야 한다고 했다. 계속 방언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잘 마치고 나니 마침 그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생각났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일을 잘 처리한 것은 모두 새벽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와 상처 부위 피부 속에 알맹이 같은 것이 만져진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점차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다치게 한 상대방 아이와 사과 없는

그 부모도 너무 과짐하고,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찰나 아차 싶어 기도했다. 악한 것이 내 마음을 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청장년부에는 중보기도 모임과 새벽기도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은 주일예배 후 다 같이 모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다. 처음에는 주일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기도 모임을 또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느꼈고, 또 기도가 잘 되는 것을 경험했다. 서로가 나는 기도 제목이 다음 중보기도 모임 때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돌기도 한다. 청장년부 새벽기도는 오전 6시~7시 ZOOM(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기도한 후 QT로 마무리하는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여 은혜롭고 하루가

더욱 귀하고 풍성해진다.

요즘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살겠어 요’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다. 기도를 하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마음에 동요가 많은데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삶이 더욱 귀하고 감사해진다. 기도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기도가 잘 되고 내가 살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알기에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 같다. 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마음에 평안과 더불어 전대미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더욱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서 올해 다 같이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길 소망한다.

정효경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2025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마감
 2025년 2월 16일(주일)
 문의: 02. 533. 9191